

이 전체 삼라만상 도량이 그냥 참선방이에요

지난 호에 이어서

'내가 태양계도 그렇게 커질 수 있고 별성도 커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악으로 커지면 큰일이고 선으로 커진다면 그것은 좀 낫지, 응?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뚱이 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별성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내 선장 한마음에 의해 그 수십억 마리가 보살로 화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천백억 보살이 화해서 전자로서 원자를 끼고, 원체를 끼고 바깥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용도에 따라서, 누가 이 보살을 청하면 이 보살로 화하고, 저 보살을 청하면 저 보살로 화하고, 지장을 찾는다면 지장으로 화하고…. 그러니 지장이 따로 있고, 관세음이 따로 있고, 신장이 따로 있고, 독성이 따로 있고, 용왕이 따로 있고, 지신이 따로 있고, 조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서 바로 모두가 화해서, 그 별성이 전부 보살로 화해 가지고 들고 나면서 멀다 하지 않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뉴욕이나 L.A.에서나 어디고 전화가 급하게 오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곰살궂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그렇게 급해서 전화하는 사람도 나요, 대답하는 놈도 나야. 만약에 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대답도 안 할 것이요, 또 내가 그쪽에서 그렇게 믿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야 한다는, 멀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지, 응? 인간들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나가지만 우리 마음은 비자 안 가져도 다닐 수 있는 거지. 멀다고 가지 못하고, 물이 깊다고 건너가지 못하고, 저승이라고 갈 수 없는 게 아냐. 한 찰나야.

그래서 맡겨 놔라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공부를 시키느라고 하는 거지, 나를 발견한다면 맡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대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는 거지. 말을 하려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말을 해, 그럼. 그래서 급하다고 전화를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전화를 탁 받는 순간 얘길 하니깐 듣는 거지. 내가 들었으면 그놈이 알고 있지 않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으니깐 자동적으로, 나고 드는 거야 자동적으로 알고 있잖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잘 들어요. 의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어느 공장에서 병이 났어. 병이 났으면 나한테 신호가 와. 아프다는 게 신호야. 알았죠? 아프다는 게 신호인데 '아이구, 여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지. 여기가 아프니깐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거야, 신호가 왔는데도. 신호가 왔으면 바로 공장장한테 거기니 여기니 할 것 없이 다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서 대뇌로 인해서 사지로 신호가 가면은 어디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 공장에서 전체를 조사해 봐라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직원들이 다 나서서 그것을 다 고친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이 몸을 형성시킨 거니깐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이거야. 남이 더 잘 알겠어, 형성시킨 자기가 더 잘 알겠어?

그러니까 고장이 난 곳을 고치는데 신호가 오면 벌써 딴 데로 나가, 다. 형성시킨 주인공한테다가 '주인공밖에는 이거 고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야 될 텐데 일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갖춰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 막 매대길 쳐. 그러니 딴 데로 매대기 치는 동안에 벌써 신호를 보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일하라고 시키질 않으니까, 신호를 했는데도 소식이 안 오니깐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판국이지, 어떻게 해.

군대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기안을 올렸는데 위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 직원이 무슨 일을 해, 응? 사장한테 올렸는데, 공장장이 올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은, 하라 말아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소리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야, 자기 맘대로.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오걸랑 빨리 조치를 취해서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때에 거기에서, 말하자면 두뇌의 총지배자죠. 그게 누진이라고 그래요. 누진에 올리면 모든 게 전체 통신이 돼 가지고선 어디가 어떻고 조사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소상히 알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형성시킨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한테 있으며, 여러분 안에 오신통을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으며, 그 오신통으로 인해서 천차만별로 나가는 질량을 전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중생이라고만 하고 부처님 법은 높은 데 있다고 하면서 '아이구, 부처님, 나를 살려 주시오. 우리 아들을 잘되게 해 주시오. 낫게 해 주시오. 뭐, 이끌어 주시오.' 뭐가 어떻고 어떻고, 속만 상하면 '아이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건 세상을 이름해서 말한 거지,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름해서 세상의 이름으로 지어 놓은 거지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는 이름이 아니야. 그냥 부르기 이전에 지금 살고 있어. 말하고, 보고, 관(觀)하고 살고 있지 않남? 그게 그냥 이름이야. 뭐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도리를 모두 알면 즉 이름 없는 관세음보살이야. 한마음으로서의 자유인이 되니까.

나는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발견을 한 그때서부터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 하면은 자(子)가 돼요. 그 자로 인해서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 돼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화신이 아들이라 하면은 아버지는 가만히, 무심으로 가만히 있을 때에는 부처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질 쳐다보면 모두가 아버지로 돌아가, 하나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고 움죽거렸다 하면 바로 아들이다 이거야.

내가 그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공부할 당시에 어느 산중에 가니까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나더러 묻기를 '이거는 아버지의 묘지인데 아들한테로 가면 아들로 하나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오면은 아버지로 하나가 되니 그것은 무슨 연고냐.' 하고 묻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다 이겁니다. 무심으로 가만히 있으면 애비요, 애비로 하나가 되는 거야. 자식이고 애비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24시간 일을 했다 하면은 자가 되는 거야. 따로 애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로 한데 합쳐 버려. 그러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일을 과학자처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렇게 따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름일 뿐이고 그것은 유의 법에서의 50%, 즉 우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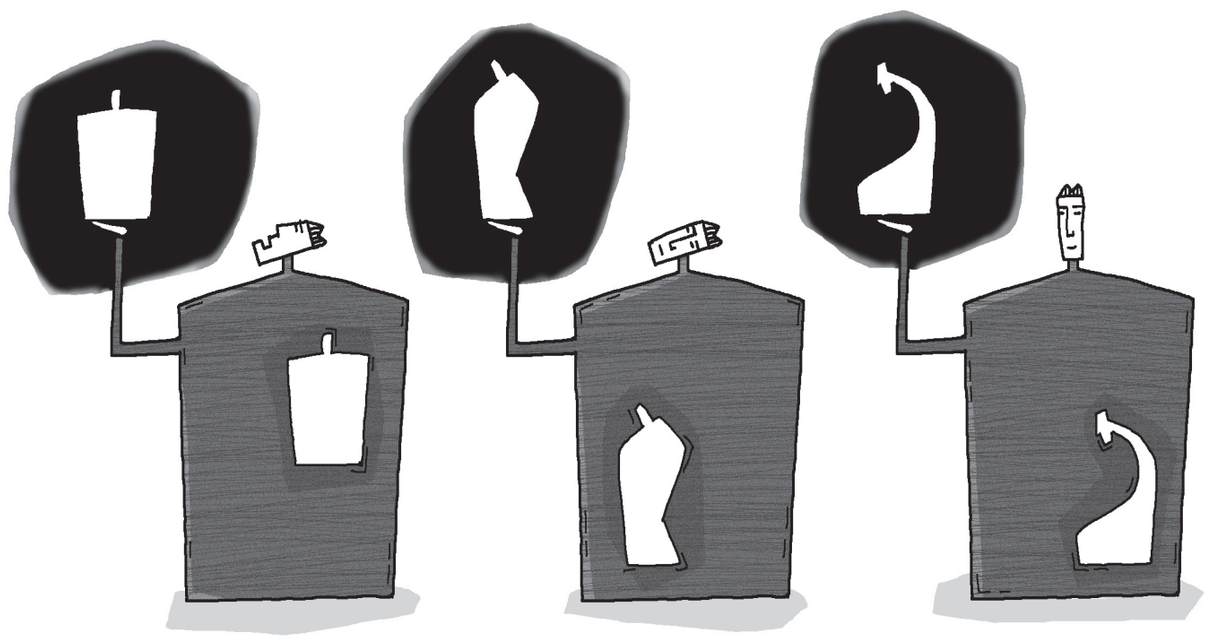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